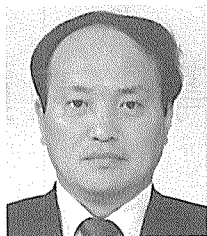


소프트웨어와 文化發展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導入된지도 於焉間 20餘年이 되었다. 그동안 컴퓨터는 놀라운 發展速度로 可恐할 波及效果를 미쳐 日常生活은 勿論, 銀行業務遂行이나 企業經營, 疾病의 診斷과 治療 또는 安全을 爲한 道具로서 實로 利用되지 않는 部分을 찾아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컴퓨터는 斷然 人間의 創造力과 誠實性에 全的으로 의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依해 遂行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無限한 可能性으로 그 重要性이 再認識 되고 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는 單純한 技術分野의 좁은 意味에서 벗어나 시스템의 運用節次와 方法, 나아가 組織의 經營能力을 包含하는 넓은 意味로 發展하게 되었다.

그런데 모든 事物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듯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밝은 面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假令 言論機關과 銀行, 店舖가 缺陷이 있어 그것도 業務마감 時間에 臨迫하여 不通이 되거나 병원의 CT攝影器 또는 漢江 水位를 調節하는 衣巖(의암)댐에 異常이 발생되고 더 큰 問題로 스토어드 프로그램(STORED PROGRAM)에 依해서 發生되면 생각하기 두려운 結果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같은 結果들은 單純한 金額이나 事務處理上의 錯誤가 아니며 社會基本機能을 癱痺시키고 우리들 財産上의 損壞는 勿論, 及其也는 가장 尊嚴한 生命



이광세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자계산소 전산개발 부장

까지도 事前에 손하나 쓸 겨를 없이 瞬間적으로 받는 소프트웨어의 攻擊으로 威脅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電算人을 爲示한 우리들 共通의 苦惱와 社會的 責任, 職業意識等이 중요한 이슈(ISSUE)로 登場하게 될 것이다.

結局은 이 모든것들이 소프트웨어 品質管理策과 關聯되어질 수 밖에 없는것인데도 이를 보장하기 爲한 絶對的인 管理方法 乃至 制度的裝置가 現在로서는 人間의 성실성과 優秀性에 依存되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늠하기도 어려운 人力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는데에 問題의 深刻性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고 優秀한 人力을 養成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解決策을 提示할 수 없는데에 事態의 深刻性은 더하다하겠다.

所謂, 下部構造에 該當하는 教育內容이나 方法에만 依存 할 수 없고 上部構造에 該當되는 匠人으로서의 마음가짐 그리고 이러한 匠人들이 생겨날 수 있는 社會的環境이 造成됨으로써 불란서 ‘자크루이 니온스’博士의 말처럼 普遍妥當性있는 道具는 文化의 一環으로 融化되고 나아가 文化發展의 原動力이 되었듯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歲月이 흐름에 따라 文化의 重要한 一環으로 定着될 것이고 새로운 文化의 열매를 맺기爲한 구실을 다 할것이다.